

상관 없습니다

올해는 여름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시원한 여름을 보내며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여름이라고 하면 뜨거운 온도를 생각하지만 이번 여름은 뜨거움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산불로 고생하던 지난 몇 년 동안의 일들이 올해는 거의 없는 다행이기도 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름에 일어나야 할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덥지 않았으니 올해는 많은 과일을 기대하지 못하리라 생각도 되었지만 실은 모든 과일들이 열매를 맺고 어떤 것들은 벌써 떨어지고 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나의 피부로는 여름이 없었던 것 같이 지나가지만 말이 없는 자연은 그것들이 하여야 할 일들을 묵묵히 진행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생각에는 계획에 지장이 많으리라 생각되었지만 자연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창조 하신 모든 것들이 그러한 온도의 변화에 적응 하며 자신에게 담당되어진 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난 한 주 간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건강의 일들, 가정의 일들, 직장과 사업의 일들, 이 나라와 떠나는 고향의 일들이 있었다. 마치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일들도 있었고, 소망이 없는 것같이 보이는 일들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주를 돌아보면 별일이 없었던 것 같이 모든 일들이 지나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보게 된다. 어떻게 보면 허무한 시간들 같기도 하고 또한 다르게 생각해 보면 늘 같은 일을 반복하는 지루한 것 같기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삶이 나의 인생인가? 아니다. 그러한 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길이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에게 그 길은 더욱 분명해 진다. 그 분명함이 소망이 되기 때문이다. 결론이 없고 발전이 없는 것 같은 반복의 연속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늘 새로운 길이다. 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할 때에 모든 일이 소망이 된다.

하나님은 사도바울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신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지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0-2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세상이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할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앞이라는 말씀이다. 세상에 더 많은 고난과 아픔이 나를 조여 온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가 가야할 길은 하나님의 임재 앞이라는 말씀이다. 사도 바울은 죽는 것과 사는 것에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결론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두려운가? 여름이 없어서 과일을 못 먹는 아픔인가? 아니다. 과일이 없어진다고 하여도 우리에게서 과일보다 더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이 있다.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길이 나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다.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고 세상이 우리들을 통하여 보고 싶어 하는 변화된 삶이다. 가을을 맞이하며 새로이 무장된 믿음생활을 준비하자.